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도심 공동화 대응·새로운 명품공간 조성·365생활SOC서비스 기반 구축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 9개 시설 구성... "주민 모두 만족하는 문화공간"

무안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형실에서 전 실국과소장, TF팀 공무원, 설계 용역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 복합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무안을 구 전통시장 이전에 따

른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여가, 문화, 보건,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명품공간 조성하고 365 생활 SOC서비스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복합문화센터는 건축면적 2,516㎡,

연면적 15,887㎡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1층 도서관, 가족센터 ▲2층 꿈틀이센터 ▲3층 문화원 ▲4층 청소년수련관 ▲5층 메이커스페이스 ▲6층 영화관, 청년센터 ▲지하주차장 등 9개 시설로 구성된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변도로를 3~4차선으로 확장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지하 1,2층에 주차대수 261대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며 "간의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복합센터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시설별 주민 의견수렴, 정부투자심사(1차)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전남도 기술심의, 조달청 적정성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옛 황포돛배매표소에 자전거터미널 개장

3억4000만원 투입...수리소·휴게음식점 등 조성



목포시는 옥암동 영산강변 옛 황포돛배매표소에 자전거터미널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11일 김종식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 3억4000만원이 투입된 자전거터미널은 영산강자전거길이 있는 옥암동 옛 황포돛배매표소에 연면적 125㎡의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사무실과 자전거 수리소가 설치됐으며, 자전거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산강 자전거길을 종주하는 자전거 이용객과 시민에게 안전교육, 수리, 보관,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게음식점도 1·2층에 마련돼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한다. 자전거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영산강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또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신규농업인(귀농) 기초영농 기술교육

함평군은 지난 10일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영농 기술교육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강식은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70여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군은 함평군 전입 5년 이내의

신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교육과정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기초교육, 우수사례 실습 및 견학 등 영농 전반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으로 총 13회 7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함평=김광훈기자

영암군, 마을단위종합도면 232매 토지조서 256권 자체 제작해 배부

영암군은 토지의 위치, 지명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를 제작해 지난 12일부터 관내 174개 자연마을과 읍·면사무소에 도면 232매, 토지조서 256권을 배부했다. 군은 이번에 배부한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공공기관, 저수지, 마을회관 등 주요 시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 제작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

여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 마을에서 도면과 토지조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가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제5기 영광여성자치대학 개강식 개최



영광군은 지난 10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5기 영광여성자치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의 자지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340여명의 수강생이 수료하였으며, 지난해

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올해 5기 수강생 30여명을 모집하여 3.10~5.26까지 재무설계, 인문학,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10차시 과정을 운영한다. 강의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대면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개강식 후에는 충전스쿨 대표이며 금융교육 전문가인 양보석 강사의 "현명한 여성을 위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1차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 암태면농촌지도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농약빈병·영농폐비닐 700kg수거로 깨끗한 농촌만들기 앞장"

신안군 암태면농촌지도사회(회장 문천수)에서 지난 8일 깨끗한 농촌만들기 위한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농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쓰레기수거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암태면농촌지도사회에서 농약빈병 및 영농폐비닐 700kg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황신식 농촌지도자신안군연합회장은 "황년에 이어 금년에도 900여 전염면 회합들과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아름다운 1004섬 신안가꾸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명주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